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려워진 한국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주일공동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체 전체회의와 총회를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그동안 준비한 공동체 정관 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를 의논하여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2 호
2021년 10월 3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선교바자회를 통해

사랑방공동체학교의 선교바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을 경험케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꾸러기학교 내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며 사랑방공동체학교가 연합하여 열리는 큰 잔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가 되면 학교교사와 학생, 사랑방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세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모여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설렘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조심스러워 선교바자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하호호 넘치는 웃음소리, 곳곳에서 코를 자극하는 맛난 먹거리들, 양손 가득 담긴 쇼핑템과 추억으로 남기는 사진들까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즐겼던 바자회 시간이 그립고 할 수 없음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올 해 전과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주어진 상황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8일 당일, 학교로 등교한 공동체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현장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또 사랑방공동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물품 장터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장터를 약 일주일간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방공동체 내의 루디아공방을 중심으로 한 포장예약 상품을 미리 주문 받아서 등교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각 가정에서 예약주문한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장예약 상품의 경우 전에는 공동체분들의 참여도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럴 수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이 모든 과정이 마감되어 결산하였습니다. 온라인 장터의 경우 직접 만날 수 없어서 학교를 통해 판매하고 구입한 물건을 서로 전달하느라 정리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바자회 판매수익금은 2,877,340원이며 여기에 루디아공방에서 특별 후원금으로 122,660원을 더해주셔서 바자회 총 수익금은 3,00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교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여러 곳을 후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선애교수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세빛자매회"에서 독신 은퇴 여선교사님들을 위해 건축중인 안식관(은퇴관)을 위해 후원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해외 선교활동을 은퇴한 이후 국내로 돌아오시게 될 때에 지낼 수 있는 거처가 마땅치 않고 연고가 없어서 어려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은퇴한 여선교사님들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할 수 밖에 없음을 듣게 됩니다. 안식관은 전체 공정의 90% 이상 진행되었지만 건축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오는 11월 4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때이지만 중요한 이 일에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 모은 작은 정성이 전해지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보낸 곳을 위해 기억날 때마다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맞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장 바자회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계획도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방식에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없고 온라인 만남으로 의사소통해야하는 것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기도 하며, 다음세대에게 어려울 때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자라는 다음세대들의 참여와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 로마서 16장 5절a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22편
제목 :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복, 평화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10 219 588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5절 주님의 집 예루살렘
   6절~9절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2. 내용의 의미(Why)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내용이 12번이 나옵니다. 많은 순례자가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질서가 잡혀있고 평안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화해가 첫걸음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복은 바로 평황입니다.

3. 의미의 적용(How)
   ① 공동예배와 공동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합시다.
   ②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위해 언제나 기도합시다.
   ③ 우리가 속한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드립시다.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그것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각자가 부여받은 선물을 토대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의욕, 즉 우리 내부에서 빛이 더욱 밝아지고 진리와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마음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체로 이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과 대단한 정화 작업과 새로운 부활을 창출하는 부단한 죽음이 요구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위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한다. 사랑방의 길은 희생으로 점철된 길이다. 이기심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기방어, 탐욕 및 개인의 만족 추구 같은 반응은 흔히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감수성 통제와 극복이 망라된 의지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일에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향하는 순화된 마음과 감정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오한 자기 정화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파견하시어 이 새로운 에너지, 이 힘, 이 훌륭한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심지어 그가 적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환영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게 해주마고 약속하셨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구석구석까지, 공포감과 장벽과 질시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곳까지 두루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공동체는 이룩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롬15:7)

장 바니에 저. [공동체와 성장]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요한복음 4 : 24	인도자
*예배의 찬송	23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편 32 : 5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8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로마서 16 : 3-16	설교자
성가대 찬양	246	사랑방
설 교	" 개혁, 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210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합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개혁, 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문안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3> 라는 형식의 문장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됩니다. 내용의 특징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5> 하는 내용과 문안하는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이며,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하나님의 가족. 바울은 로마(정치적 땅끝)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롬1:10> 로마를 거쳐 스페인(지리적 땅끝)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식민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로마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계획이셨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글라디우스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은 후이고, 아직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있는 작은 교회는 선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환난에 대한 치유와 예방의 길입니다.

개혁, 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있는 작은 신앙공동체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 지향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운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방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이 있는 작은 공동체인 사랑방성서모임을 먼저 실험하고 확신을 얻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방성서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모임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항상 10월 마지막 주는 꾸러기에게 아주 특별한 주입니다. 바로 7살 졸업여행이 있는 주입니다. 꾸러기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이제 정리하는 순서 중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졸업여행입니다. 5살, 6살은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선배들이 졸업여행 이야기를 너무 좋았다고 자세한 이야기들 들려줘서 졸업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코로나19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많은 회의와 준비로 아주 즐거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은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후배들 없이 모든 교사가 오로지 7살을 위해 보내는 졸업여행은 아이들이 먼 곳을 가더라도 잘 받아들입니다. 졸업여행을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대표적으로 키즈펜션에 가고싶다는 것과 비눗방울놀이, 도블, 고누, 물놀이 등 놀거리에 대해 얘기를 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서 멋진 키즈펜션으로 갔습니다.

좋은 날씨에 강릉은 정말 멋졌습니다. 강릉에서 갔던 해변, 수산물시장, 중앙시장, 오죽헌은 숙소에서 가깝고 멋진 곳들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멋졌던 건 1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단잠을 자면서 놀 체력을 비축하는 7살 친구들의 의지와 어디에서도 즐거워하는 예쁜 미소가 가장 멋졌습니다. 동생들에게 양보도 많이 하고, 선배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느라 고생한 우리 7살이 정말 행복해 하고,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2년만에 조심스럽게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참여하는 어린이, 선생님, 부모님들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예년에 비해 약간 축소된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에 출발해서 먼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을 둘러보고, 저~~~기로 한참 더 가면 독도가 있다는 동해 바다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저녁으로 회와 대게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어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해파랑길 27코스부터 24코스 월송정까지, 첫 날에 25km, 둘째 날에는 30km를 걸었습니다.

예쁜 바다, 바위, 갈매기, 부두, 논과 밭, 산과 하늘, 수평선과 지평선, 평지와 오르막과 내리막… 많은 것을 보고, 긴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같이 걸어주시고, 또 매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셨다면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웃겨주고, 격려해주고, 화이팅 외쳐주는 친구와 선후배가 있어서 아픈 발과 다리를 참아가며 모두가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울진의 이곳 저곳을 직접 걸어서 다녀본 크고 귀한 경험을 또 쌓을 수 있었네요.

위해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가을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감수성 풍부한 멋쟁이들도 돌풍에 흩날리는 단풍을 보며 감탄의 탄성을 터트립니다. 점차 멋쟁이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유증으로 학교에 못오는 것은 아쉽지만, 더 안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열린수업은 도서부에서 준비한 [영화로 보는 책]이라는 코너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작 책이 있는 영화를 다함께 시청한 뒤, 즉석에서 감상문을 받아 원작 책을 읽은 도서부원들이 심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기억전달자the giver"를 보고, 명예의 상을 거머쥔 멋쟁이는- 저학년에서는 김지우 멋쟁이, 고학년에서는 이애리 멋쟁이가 당선되었습니다. 공동심화수업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대해 들어보고, 토론하는 광경도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심도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포천시청에서 정기 방역 점검을 나왔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일들로 남은 학기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그저 감사뿐

와~~ 고사리 같은 손에 자기 얼굴만 한 고구마를 들고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 하민이. 한 손은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도 다른 한 손에는 고구마를 들고 있는 하성이. 야무지게 일꾼으로 한 몫하는 하온이. 동생들에게 경력자임을 자신 있게 뽐내며 호미를 들고 연신 땅을 파대는 아영이. 일당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느새 쑥 커버린 공동체의 청소년님들~~ 공동체 밭에서 고구마를 캐던 날 아이들이 모습이 한 주가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항상 추수의 때가 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럭무럭 자라 준 고구마며 콩이며 배추들을 볼 때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저 카톡에 한 줄 '내일 오전 10시에 고구마 캡니다'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다들 휴일의 달콤함을 버리고 밭으로 달려옵니다. 물론, 의무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오시지는 않죠. 그러나 누구 하나 원망의 말 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할 뿐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파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고 바구니가 꽉~~~ 차는 추수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오신 율리안, 엘라 선생님도 함께 공동체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율리안 선생님은 큰 키로 수세미와 박을 모조리 따주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따던지요.

공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공동식사와 더불어 공동작업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행위가 바로 한 식구임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 때도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자녀들을 볼 때 기쁨과 감사는 훨씬 더 커지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든든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한2서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이티를 위한 기도>

지난 16일 한낮에 아이티에서 갱단이 미국과 캐나다 선교단 17명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며 억류 중에 있습니다. 26일에는 갱단이 연료 공급길을 장악하고 총리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갱단의 수가 크게 늘어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40% 이상이 갱단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티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환절기에 사랑방공동체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2) 여행중인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가 안전속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무림리의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색깔 옷으로 갈아입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당의 느티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려,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뽑냅니다. 어린이학교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도보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꾸러기학교도 졸업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멋쟁이들은 노작시간에 공동체 밭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김장을 위한 작물들만 남겨두고 밭에 나머지 작물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애쓴 많은 손길에 감사합니다.

< 정재훈 목사 >